

① 개요

하도본향 삼싱당 본풀이는 구좌읍 하도리의 본향당인 삼싱당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도걸호 도집사가 할망과 함께 좌정하였다가 할망이 차린 조반에 티끌이 있는 것을 이유로 살림을 갈라 도집사는 연두막에 좌정하고 할망은 각시당에 좌정하였다.

② 내용

고구려 때 도걸호 도집사가 강진 부산땅에서 들어와 별방 마을 연두막에 좌정하였다. 도집사가 어디로 나가려고 하니 할망이 차려온 조반에 티끌이 들어 있었다. 도집사는 괘씸하게 여겨 바람 아래로 살림을 가르라고 하였다. 할망에게 각시당으로 가서 따로 좌정하고 들고 나는 자손에 제향을 받으라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연두막에 좌정하여 자손에게 명과 복, 생불을 주겠다고 하였다.

③ 특징

구좌읍 하도리에 살았던 강봉언 심방의 전승자료이다. 도집사와 각시당 할망 부부가 살림을 가른 이유가 특별하다. 일반적으로는 돼지고기 금기를 어기는 것인데, 이 자료에서는 조반에 티끌이 들어 있다는 것 때문이다.

④ 핵심어

고구려, 도걸호 도집사, 강진, 부산, 별방, 연두막, 각시당

⑤ 원전 서지사항

하도본향 삼싱당(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⑥ 관련 자료